



미추홀운전사



미추홀 곳곳을 누비는 택시운전사!
택시를 타고 함께 떠나는 미추홀 추억 여행

2019.11.30. | 토 | 오후 7시

학산소극장

문의 032-866-3994

우리동네 이야기 <미추홀 운전사>

한 작품, 세 가지 색다른 버전,

시민연극 공연‘미추홀 운전사’ 시리즈의 마지막 완결판!

[학산 시민극단과 극단 미추홀의 콜라보] 우리동네 이야기 ‘미추홀 운전사’

학산시민극단과 인천지역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극단 미추홀 전문 배우들의 결합.

전문예술인과 아마추어 예술인의 합동공연을 통해 [미추홀 운전사]의 극적인 부분을 살려 드라마+음악+오브제를 사용한 총체극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

1 쓰레기 문전수거

문전수거를 하는 어르신이 편찮으셔서 동네 골목의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는 상황. 그 와중에 ‘최씨’ 집 앞에 누군가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. 몰래 버리고 간 쓰레기 안에서 이웃 ‘노씨’집의 지로 영수증이 발견되는데...

2 신기시장 사람들

미추홀구에서 운전한 지 어언 30년이 된 ‘택시운전사’ 현숙. 오늘도 어김없이 승객들을 태우고 미추홀 이곳저곳을 다닌다. 반찬거리를 사러 신기시장에 가는 아주머니, 그리고 시장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며 막걸리를 만드는 와룡식당의 사장님을 만나는데...

3 옛것을 지키는 양조장 사장님

30년 전 와룡양조장.

시대의 변화에 맞추어, 기업 공장 막걸리에 맞설 방안을 찾기 위해 모인 탁주회사 사장님들.

하지만 와룡양조장 사장님은 모든 제안을 거부한 채 끝까지 옛것을 지키고자 하는데...

4 나는야 미추홀 택시운전사

수봉공원 놀이동산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는 할머니

‘택시운전사’는 할머니에게 놀이동산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해준다.

아들과의 추억이 담겨있다는 옛 수봉공원 놀이동산, 석바위공원 그리고 승기천까지.

택시를 통해 만나보는 미추홀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.

극단 미추홀

극단 미추홀은 1981년 1월 27일 창단하여 39년 동안 70회 정기공연과 그밖에 기획공연 및 워크숍 공연을 정기적으로 무대에 올리며 인천지역에서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극단으로 제8회 전국 연극제에서 윤조병/작 [아버지의 침묵]으로 대통령상 단체상과 최우수연기상, 최우수조연상을 수상한바 있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극단입니다.

- 대표 : 김종원
- 전문배우 : 신수경, 정영민, 송희근, 이선호



학산 시민극단

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미추홀학산문화원의 시민극단으로, 미추홀구의 역사, 환경, 생활문화 등 지역을 소재로 하는 창작극을 통해 세대별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역문화공동체의 작은 디딤돌이 되고자 함.

- 지도강사 : 김범수
- 시민배우 : 김예진, 김준식, 김현자, 박소영, 방명숙,
이경근, 이명주, 이은희, 이정애,
조미숙, 홍선화
- 활동실적(학산소극장 공연)
2019. 08. 30.(토) 낭독공연 <미추홀운전사>
2019. 11. 02.(토) 음악과 함께 하는 <미추홀운전사>



공연준비과정



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26 (용현동)

T. 032-866-3993~4

F. 032-866-3971

 <http://www.haksanculture.or.kr/>

 @mchhaksan

 @미추홀학산문화원